

5/12

일기는 정말 오랜만에 쓰는 것 같다. 일기는 초등학교 때 까지만 쓰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쓰니 왠지 재미롭다. 초등학교 때면 매일 억지로 써서 맨날 머리를 쥐어짜며
있는 내용 없는 내용을 쓰던 때가 떠오른다. 어릴 때는 무작정 하루동안 했던 일이나
즐거웠던 일이 있었던 일만 썼었는데 지금보면 그때 정말 어렸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솔직히 일요일날 한일이 게워 한거 밖에 쓰기 때문에
이런 일기를 썼는데, 나쁘진 않다.

-전병찬